

“견실한 선”에 대한 모색: 존 밀턴의 1640-50년대 소네트 연구*

김윤경 (서울대)

I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존 밀턴(John Milton)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낙원』(*Paradise Lost*)을 쓴 위대한 서사시인 밀턴, 청교도 밀턴, 이혼론이나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같은 정치 산문을 집필한 논객 밀턴, 혹은 극작가 밀턴 등, 밀턴의 문화적, 정치적 경력은 실로 다채롭다. 그러나만큼 밀턴 연구자들은 그의 다양한 면모를 평가하는 기획을 끊임 없이 세워왔는데, 소네트 작가(sonneteer) 밀턴은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영문학도는 실명에 대한 소네트 19번(“When I consider how my light is spent”)이나 피드몽 학살을 강렬하게 고백한 소네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18번(“On the late Massacre in Piedmont”)을 그의 빼어난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¹⁾ 그러나 스마트(J.S. Smart)가 1921년에, 호니그만(E.A.J. Honigmann)이 1966년에 서문과 주석을 붙여서 밀턴의 소네트집을 편찬했을 뿐, 그의 소네트 전체를 다루고 있는 단행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²⁾ 또한 개개의 소네트를 연구한 소논문은 적지 않지만 밀턴의 소네트를 아울러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고, 대개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19번과 18번, 그리고 이혼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소네트 11번(“A Book was writ of late called *Tetrachordon*”)과 12번(“I did but prompt the age to quit their clogs”), 혹은 사별한 부인에 대한 환상을 그렸다고 추측되는 소네트 23번(“Methought I saw my late espoused saint”) 등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학술적 연구가 전기적(biographical)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작품에, 혹은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작품에 몰리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24편에 이르는 밀턴의 소네트는 편수만 보아도 애초부터 셰익스피어나 시드니, 혹은 마이클 드레이튼(Michael Drayton)의 소네트 연작에 비할 수 없다. 또한 밀턴이 1620년대 후반부터 165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에 산발적으로, 그렇지만 꾸준히 집필했던 소네트는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기에는 이렇다 할 초점이 금방 보이지 않는다.³⁾ 사실 밀턴이 1630년대에 쓴 6편의 이탈리아어 소네트는 이국

1) 본 논문에 인용된 밀턴의 소네트의 텍스트는 모두 존 캐리(John Carey)의 *Milton: Complete Shorter Poems*에 의거하고 이후로는 행수만 괄호 안에 제시한다. 소네트 번호의 경우 트리니티 대학 수고본(Trinity College Manuscript)의 순서와 1673년에 출판된 *Poems, & Upon Several Occasions*에 의거하여 번호를 매긴 연구 관행을 따랐다. 주석은 캐리의 판본과 윌리엄 케리건(William Kerrigan) 등이 편집한 모던 라이브러리(Modern Library)판과 로이 플래너건(Roy Flannagan)이 편집한 리버사이드(Riverside)판, 호니그만의 판본을 참조하였다. 각 소네트는 처음에 언급될 때에만 밀턴 자신이 붙인 제목이나 첫 행을 괄호 안에 제시하고 이후로는 번호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2) 유일한 예가 안나 나르도(Anna K. Nardo)의 *Milton's Sonnets and the Ideal Community*(1979)이다.

3) 밀턴의 소네트를 소네트 연작의 전통과 연결하여 보거나 그의 소네트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성을 찾는 연구로는 윌리엄 매카티(William McCarthy)의 “The Continuity of

적인 미인을 찬양하거나 연애시에 대한 야심을 노래하는 등, 주제 면에서 밀턴의 다른 시들과 연결시키기도 어려우며 어찌 보면 외국어로 쓴 습작처럼 보이기도 한다.⁴⁾ 다른 한편, 이혼론 비판을 반박하는 소네트와 페어팩스(Sir Thomas Fairfax)나 크롬웰(Oliver Cromwell)에게 바쳐진 소네트는 당시 시국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생산되었고, 역사적 구체성이 있는 만큼 당대 사건과 연결하여 연구할 수는 있는 반면, 정치적 국면을 다루지 않은 소네트와 함께 다룰 수 있는 지점이 쉽게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밀턴이 1640-50년대에 쓴 소네트를 하나로 묶어 살펴보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일단 밀턴 본인은 소네트를 계속 생산했고, 그의 긴 문학적 경력에서 가장 꾸준하게 작품이 생산된 장르는 다름 아닌 소네트이다. 소네트는 트리니티 대학 수교본이나 1645년 작품집, 1673년 작품집에서 언제나 다른 시들과 구분되어서 번호까지도 매겨져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밀턴이 자신이 쓴 소네트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제시하려고 노력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소네트를 1645년 작품집에 실렸던 1630년대의 작품들이나 1650년대의 산문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전에 그가 시도했던 엘레지, 비문(epitaph) 같은 장르의 특성이 조금씩 변용되어 소네트의 형태로 수렴된 듯 보인다. 내전 중에 밀턴이 정치 산문을 집필하고 여러 격변을 관찰하면서 이에 반응한 바도 소네트에서 알맞은 형태를 찾는

Milton's Sonnets"나 윌리엄 L. 스텔(William L. Stull)의 "Sacred Sonnets in Three Styles," "Why Are Not Sonnets Made of Thee?" A New Context for the 'Holy Sonnets' of Donne, Herbert, and Milton"이 있다. 영국 소네트 연작의 변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캐롤 토머스 넬리(Carol Thomas Neely)의 "The Structure of English Renaissance Sonnet Sequences"를 참조할 수 있다.

- 4) 밀턴에서 발견되는 이탈리아 문학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F. T. Prince의 고전적인 저서 *The Italian Element in Milton's Verse*가 있다.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 1장 "The Italian Background"를, 밀턴의 소네트와 델라 카씨(Della Casa), 뎀보(Bembo), 타쏘(Tasso)의 소네트 비교는 제 6장 "Milton's Sonnets"를 참고하라. 마리오 A. 디 세자레(Mario A. Di Cesare)의 편저 *Milton in Italy: Contexts, Images, and Contradictions*는 이탈리아의 음악, 회화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과 밀턴의 이탈리아 여행 등 좀 더 광범위한 분야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듯하다. 이는 소네트가 10음절, 14행이라는 짧고도 압축된 형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밀턴이 호국정 정부를 위하여 일하며 대작을 준비하는 동안 문학적 작업으로는 소네트 집필과 시편 번역으로만 자신의 시적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밀턴이 소네트 장르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 실험적 운용, 혹은 변용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문학적 경력과 역량이란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사건이다. 동시에, 이런 현상은 나이젤 스미스(Nigel Smith)가 지적하였듯이 17세기 중반의 문인들이 새로운 감성과 발언 방식을 요구하는 내전이라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문학 장르나 토포스(topos)를 적지 않은 정도로 확장, 변형시키거나 폐기해야 했던 움직임(251-58, 276-294)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밀턴의 1640-50년대 소네트 중에서도 범위를 약간 더 축소하여, 독자 일반보다는 특정한 인물 혹은 집단에게 발언된 형식으로 쓰였거나 혹은 그러한 발언을 담은 소네트를 점검하고자 한다. 사실 이 시기의 밀턴의 소네트 대 다수는 그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지인이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하리라고 기대되는 인물에게 발화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형식을 보아도 많은 소네트는 청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고,⁵⁾ 마치 사회적 발화처럼 들리는 이 소네트들에서 밀턴은 자신과 청자와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이 일군의 작품에서 자신의 청자를 칭찬하거나 질타하면서, 또 이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특성을 점검함으로써 밀턴이 “견실한 선을 향한 가장 가까운 길”(Toward solid good what leads the nearest way, Sonnet 21, 9)을, 혹은 공민적(civic) 미덕을 갖춘 인간들로 이루어진 영국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음을 보이려고 한다.

공민적 미덕이라는 개념이 “견실한 선”이라는 함축적이고도 포괄적인 상태를 구성한다고 밀턴이 상정한 속성을 비교적 잘 담아낸다고 본 까닭은 밀턴은

5) 1640-50년대의 총 16편의 소네트 중 10편의 소네트(8, 9, 10, 13, 15, 16, 17, 20, 21, 22)가 시적 화자가 청자를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11, 14, 18의 경우 2인칭 대명사로 불리는 청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공민적 자질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양상의 실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말했다기 때문이다. “시민의 관”(civic crown)으로 상징되는 공민적 미덕은 일차적으로는 내전 중 밀턴이 맹렬하게 비판했었던 군주제나 군주제의 폭정과는 대척점에 놓인 우월한 정치적 형태와 직결되어 있다. 다른 한편, 그가 『아레오파지티카』 표지에 유클리데스(Euripides)의 『탄원자들』(*Supplices*)의 구절을 번역하여 “자유민이 공중(公衆)에게 충고해야 할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라 할 수 있다”(This is true liberty when freeborn men / Having to advise the public may speak free, 1-2)라고 말하거나, 소네트 8에서 아테네 침공과 시인 핀다루스(Pindar)의 운명을 언급했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밀턴에게 고전 희랍과 로마 공화정의 정치 체제는 이들의 세련되고 건전한 문화와 고양된 정신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밀턴은 구교와 교회감독제도(prelacy)를 모두 억압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로 여기면서, 공민적 미덕과 자질이란 종교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며 바람직한 종교적 체제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조직 및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밀턴에게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세련됨, 건전한 종교제도를 대표할 수 있는, 혹은 이러한 것들을 실천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인물들을 계속 제시하는 작업은 이런 미덕을 지닌 인물들의 집합체인 영국 사회의 발전을 상상해보는 작업이었다.

1640-50년대 소네트에서 보이는 밀턴의 모색과 그 방법을 점검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청자이자 시의 제재가 된 인물들에 집중한 소네트, 그리고 청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나 청자와 시적 화자 사이의 관계가 흥미로운 소네트로 나누어 각각을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다시 기존의 문학적 관습을 충실히 따르면서 일상적, 사회적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인 인물을 칭찬한 작품들, 그리고 내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과 변화한 역사적 환경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자질에 대하여 제시한 시들로 구분하여 보겠다. 사실 밀턴이 내전의 한복판에서 생산한, 소위 ‘정치적인’ 소네트와 비교적 전형적인 소네트 사이의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 두 그룹의 소네트 사이에는 수사적 기법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연속성이 있다. 다른 한편, 몇몇 소네트는 분명 내전 중 일어

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이러한 요소를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전이라는 배경을 강조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더욱 흥미로운 소네트는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I

시기적으로도 1640년대 초반에 집필되었고 행사시(occasional poetry)와 비슷한 소네트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본격적으로 소네트를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밀턴의 첫 시집(1645)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밀턴이 분명 정치적으로도 급진적이고 문학적으로도 혁신적이었던 한편, 동시대의 문인들과 작품 면에서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행사시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명확히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나, 리차드 헬거슨(Richard Helgerson)이 17세기의 기사당원(Cavalier) 시인들과 밀턴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며 지적했듯이 이 시대의 시인이라면 대부분 사회적 의무처럼 각종 행사를 기리는 시를 계속 생산했다(3-5). 밀턴 역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1660년대 이전까지는 지인들의 장례식 등을 준비하며, 혹은 종교 축일을 기념하며 라틴어나 영어로 다양한 행사시를 꾸준하게 썼다. 널리 알려진 『리씨다스』(“Lycidas”)나 『그리스도 탄생일 아침에 부치는 송시』(“Ode on the Morning of Christ’s Nativity”), 『가면극』(A *Masque*)도 사실 이러한 범주의 시에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640-50년대에 밀턴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혹은 그들을 향하여 쓴 소네트는 그의 1630년대 작품을 발전 및 확장한 것인 동시에, 여러 연구가 지적하듯이 (Honigmann 39-44; Brown 329-33; Schlueter 123-125) 당대의 인물을 찬양하거나 평가했던 호라티우스(Horatius)의 오드(ode) 같은 로마 고전과 타소(Torquato Tasso) 등의 이탈리아의 영웅적 소네트(sonnetto eroico)의 선례 역시 따른 것이었다. 또 영국에서는 비록 소네트와 형식은 다르지만 벤 존슨(Ben Jonson)의 에

에피그램(epigram)이 지인이나 당대의 유명인들에 관한 밀턴의 소네트와 연결될 수 있는 가까운 예이다. 주디스 쉐러 헤르츠(Judith Scherer Herz)에 의하면 에피그램과 소네트의 압축성 때문에 소네트를 확장된 에피그램으로 여기면서 두 형식을 거의 동일시하는 사례도 있었고(30), 분명 밀턴은 다른 당대 시인들의 작품보다도 1616년과 1640년에 작품집을 출판하면서 여러 문인의 관심을 받았던 존슨의 시를 훨씬 더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밀턴이 24개의 소네트와 그 외의 영어, 라틴어 엘레지 등에서 다루었던 인물들의 수와 다양성은 존슨의 에피그램과 서한체시(epistle)에 등장한 사람들의 범위와 다양성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존슨은 제임스 1세를 비롯한 귀족 후견인 혹은 지인을 칭찬하면서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듭해야 했으나, 밀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슨보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다른 한편, 밀턴이 자신의 독자와 청중에 대하여 내세우는 엄격한 요구는 존슨의 그것과 비교할 만하다. 두 시인 모두 자신의 도덕적 진실성과 문학적 권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까다롭게 동시대의 인물 중 전범이 될 법한 사람을 골라서 칭송하고 있다는 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밀턴과 존슨이 호라티우스나 키케로(Cicero) 등의 희랍 로마 고전 작가로부터 받은 공통의 영향도 이 두 작가의 에피그램과 소네트를 비슷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물론 청자의 구체적인 특징과 환경을 잘 살펴야 하고,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기념되는 행사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하는 등, 행사시 자체가 집필, 이용되는 방식은 밀턴이나 존슨뿐 아니라 당대의 모든 시인에게 공통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종류의 행사시인 장례용 시로 쓰인 소네트 14번(“When Faith and Love which parted from thee never”)에서 밀턴은 친밀한 사이였던 출판업자인 조지 토머슨(George Thomason)의 부인인 캐서린 토머슨(Catherine Thomason)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녀의 종교심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기독교인이 현세에서 이루어야 할 미덕과 그에 대한 보상을 그리고 있다.⁶⁾ 이전에도 밀턴

6) 조지 토머슨은 유명한 내전시기 팸플릿 모음인 토머슨 산문집(Thomason Tracts)을 수집한 출판업자로, 보수적이고 온건한 장로교였다. 캐서린 토머슨은 유산으로 많은 책

은 대학의 동료, 스승의 죽음에 대한 시, 윈체스터 공작부인에게 바친 비문 등 장례식시를 계속 집필했고, 1630년대 후반에는 「리씨다스」나 「데이몬의 비문」(“Epitaphium Damonis”) 같은 탁월한 작품을 생산했다. 첫 시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도 장례식시의 비율은 매우 높다. 장례에 임하여 쓰인 이전의 시들의 연장선에 서있는 소네트 14번에서 밀턴은 토머스 부인의 이름이나 현세에서의 그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야단스럽게 그녀를 칭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이름 없는 무덤의 비문처럼 들리는 이 시에서 그녀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거쳐 가야할 보편적인 여정, 마치 도덕극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신앙과 승리의 드라마로 제시된다.

시작부분에서 죽음은 캐서린 토머슨이 “삶이라 불리는, 죽음이라는 이 지상의 짐”(this earthly load / Of death, called life, 4-5)을 내려놓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또 밀턴은 그녀의 죽음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기독교인의 미덕인 사랑과 믿음이 그녀의 영혼을 성숙시켜 신에게 떠나보내는 과정임을 보이며, 자연스럽게도 평화스러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첫 4행이 이 소네트를 실제로 접했을 토머슨 가족을 온화하게 달래며 복돋는 장례용 시 고유의 기능을 담고 있다면, 5행 이후는 선행이나 자선 같이 (Thy works and alms and all thy good endeavour, 5)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기독교적 덕목을 제대로 성취한 인간이 사후에 더욱 훌륭한 상태로 변화하여, 지복의 상태에 다다른 전진의 과정을 제시한다.

그러나 믿음이 황금 지팡이로 가르치자
 [당신의 행위와 자선, 모든 선행은]
 당신을 따라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사랑이 이들을 이끌었고, 이들 당신의 하녀를
 가장 잘 아는 믿음이 자색 빛살과
 남색 날개로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더니,
 이 옷을 입은 채 이들은 날아올랐습니다.

을 남긴 것으로 보아 지적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ut as faith pointed with her golden rod,
 [Thy works and alms and all thy good endeavour]
 Followed thee up to joy and bliss for ever.
 Love led them on, and faith who knew them best
 Thy handmaids, clad them o'er with purple beams
 And azure wings, that up they flew so dressed (7-11)

믿음의 “금지팡이”(7)와 사랑의 인도(9) 같은 표현이나, “위로”(up), “날개”(wings), “날다”(flew) 등의 상승과 연관된 단어들은 죽음의 어두움을 상쇄하는 한편, 캐서린 토머슨의 미덕이 그녀를 쫓아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차분하고도 기운차게 진행되는 순례처럼 보이게 만든다. 자선을 비롯한 기독교적 미덕이 천국으로 상승하는 과정은 토머슨 가족으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캐서린 토머슨의 행로를 상상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이들 가족을 위로하면서도 이들에게 죽음의 종교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기능 역시 지니고 있다.

소네트 14번에서는 밀턴의 1640-50년대 소네트가 실로 다양한 사람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넓은 층의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방식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그의 소네트가 행사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띄게 된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신교로서 자부심과 열정이 남달랐고, 신학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이었던 밀턴이었지만, 이 시에서는 고인의 믿음과 함께 선행과 자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심판관(judge)인 신 앞에서 인간을 변호해주는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다(12-14). 이 시에서 묘사된 기독교적 죽음이 개신교 교리와 딱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서린 토머슨의 죽음은 중세 시대의 『만인』(Everyman)에 그려진 것과 같은 죽음의 예비 및 경험과 매우 흡사한 정도이고, 이런 면에서 밀턴은 구교와 영국 국교회의 종교적, 문화적 유산과 전혀 거리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례용 시에서는 시를 가장 먼저 읽을 가족들을 위해서는 선행 등의 훌륭한 면모가 구체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무시하기 힘든 현실적 요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관직이나 공적인 업적을 칭송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장례용 시는 더욱이 이들

이 생전에 행했던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면도 있다.

소네트 13(“To Mr H. Lawes, on his Airs”)은 장례시인 소네트 14번만큼이나 17세기의 전형적인 행사시와 흡사하고 실제로 행사시다운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또, 이 시 역시 밀턴이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청자에게 소네트를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찰스 1세에게 총애 받았던 궁중 음악가인 헨리 로즈(Henry Lawes)는 형제 윌리엄 로즈(William Lawes)를 기리기 위해 1648년에 『음악시편선』(*Choice Psalms Put into Musick*)을 펴냈다. 이때 밀턴은 『가면극』의 음악을 작곡하였던 헨리 로즈를 위하여 이 시를 써주었고, 실제로 소네트 13은 로즈의 작품집에 실려 처음 출판되었다(Campbell and Corns 184). 왕에 대한 헨리 로즈의 충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 작품집에도 당시 투옥되어 있었던 찰스 1세에게 바친 헌사가 함께 실려 있지만, 밀턴은 자신과 로즈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는 무관하게 로즈를 치하하는 시를 써준 듯하다.

밀턴은 로즈의 음악이 당대의 음악에 비해서 탁월하기에 로즈가 후대에 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대가 시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으니, 그대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시가 날개를 빌려줘야 합니다”(Thou honour'st Verse, and Verse must lend her wing / To honour thee, 9-10)라는 찬사로 헨리 로즈가 음악과 시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를 이상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엄한 음악에서』(“At a Solemn Music”)나 『아케이드』(“Arcades”),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 중 만났던 여가수 레오노라 바로니(Leonora Baroni)를 찬양하는 라틴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워낙 밀턴 본인이 음악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졌었지만, 주지하듯이 17세기 문인들의 서정시는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헨리 로즈와 윌리엄 로즈 모두 서정시를 가사로 삼은 노래로 유명한 음악가들이었던 만큼 밀턴의 평가는 상당히 적합한 찬사라고 하겠다. 밀턴이 “벤의 아들들”(Sons of Ben)이라 스스로를 칭했던 기사당원 시인들처럼 문인 동료에 대해 기탄없이 말했던 적은 없으나, 『셰익스피어에 대해』(“On Shakespeare”)나 소네트 13은 분명 밀턴도 다른 시인들처럼 17세기 중반의 문화적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당대의 문화인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지

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헨리 로즈에 대한 소네트 13은 그의 작품집 출판 축하라는 목적에 충실히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밀턴의 이 시기의 소네트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자 밀턴의 산문들과도 연결되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 밀턴이 로즈를 훌륭한 음악가로서 칭찬할 때 초점은 로즈가 영어에 맞는 음악을 만들었고, 그 “영국적” 특색을 지닌 음악이 문화적인 세련됨에서 다른 나라의 음악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와 음악과의 조화를 언급하는 구절(First taught our English Music how to span / Words with just note and accent, not to scan / With Midas’ Ears, committing short and long, 2-4)에서 로즈의 음악에 대한 평가는 운율을 자세히 언급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어서 분명히 상투적인 칭찬 이상의 것으로 들린다. 에드먼드 윌러(Edmund Waller)도 1635년에 『헨리 로즈에게』(“To Mr. Henry Lawes”)에서 비슷한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⁷⁾ 밀턴은 로즈의 음악과 영어의 효과적인 어울림을 진심으로 높이 산 듯하다. 이에 더하여, 이후 12-14행에서 자신과 로즈와의 관계를 『신곡』의 연옥편에 등장한 단테(Dante)와 카셀라(Casella)의 그것에 비교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밀턴은 영국의 시와 음악이 유럽의 시나 음악과 어깨를 같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1630년대 후반에 밀턴은 이탈리아 여행 중 만났던 지오바니 바티스타 만소(Giovanni Battista Manso)에게 바친 『만소』(“Mansus”)에서 이탈리아의 문화, 지식과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의 결속 관계에 대한 부러움을 토로했는데, 로즈와 영국의 시어와의 결합은 이러한 문화적 시너지가 영국에서도 소규모로나마 구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즈가 영국의 음악가로 조명 받는 것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밀턴이 『영국역사』(*History of Britain*)를 집필하며 영국의 역사를 고전의 역사와 비교

7) “그러나 그대만이 진정 한 음절도 잃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어와 의미가 그대에 의해 자리 잡게 하시오”(But you alone may truly boast / That not a syllable is lost/ [...] Let words, and sense, be set by thee, 19-20, 28). 윌러의 텍스트는 쏘 드러리(Thom Drury) 판을 따랐다.

함으로써 역사적 자의식을 새로이 하였던 것이나 호국경 정부에서 두 편의 라틴어 영국 옹호론(*Defensio pro Populo Anglicano, Defensio Secunda*)을 펴낸 경력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은 1646년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사서인 존 로우즈(John Rouse)에게 바친 오드(“Ad Joannem Rousium”)에서 로우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자신의 첫 시집이 영광스럽게도 고전과 함께 놓일 것이라는 기대(61-72)를 과장스럽게 표현하며, 영국의 학문을 담당하는 집단으로서 옥스퍼드 대학과 자신의 시집을 동시에 추켜세운 것과도 유사하다. 사실 1640-50년대의 소네트들 중 다수는 초반부에 청자로 상정된 인물의 조상을 찬양하는 고전의 수사적 전통을 이용하여 가까운 과거의 영국을 돌아보고 당대의 인물들도 바로 그 과거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범이 될 만하다고 칭찬하고 있다. 소네트 10(“Daughter to that good Earl, once President”)에서 청자인 마가렛 리(Margaret Ley)의 부친인 말보로 백작(Earl of Marlborough)은 청렴한 공직 생활의 모범으로(1-3), 소네트 21(“Cyriack, whose grandsire on the royal bench”)에서 시리악 스킨너(Cyriack Skinner)의 외조부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영국의 법률의 기초를 다진 인물(2-4)로 언급되고 있다.

『실낙원』에 그려진 것 같은 장구한 역사에 대한 비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640-50년대의 소네트에서 밀턴이 이처럼 모범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국의 모습은 제법 알뜰하다. 조명되는 인물도 평범한 여성, 왕당파 음악가, 의회파의 장군 등 다채로운 데에다, 이들의 조상을 통해서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의 현재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나 제임스 1세 시대처럼 현재를 일궈낸 가까운 과거의 모습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밀턴의 전망은 모범적인 과거를 기억하면서 밀턴 자신이나 캐서린 토머슨, 헨리 로즈 같은 인물이 이러한 과거의 전통을 방해하는 사회적 움직임 혹은 현세의 유혹에 저항하며, 종교적 미덕과 예술적 성취 등을 통해 현재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밀턴의 소네트는 로즈의 음악이나 밀턴 자신의 시로써 예증되듯이, 한층 발전된 영국의 문화가 영국의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진보에 걸맞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그의 자신감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

III

소네트 13이나 14 같은 작품은 기존의 행사시가 지닌 전통적인 기능을 충실히 다하면서도 종교적 미덕이나 문화적 자신감, 영국적 역사의 형성 등 밀턴 자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를 다른 동시대인들도 비교적 낮설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한 시이다. 반면에 밀턴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의 소네트는 그의 이혼론에 대한 비판,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문제, 급변하는 국내의 정치 상황 같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밀턴의 이런 소네트는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러 연구가 지적하듯이 정치가 소네트와 무관했던 주제는 물론 아니었다. 타락한 교황권의 문제를 비판하는 전통은 페트라르카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고, 안나 K. 나르도(Anna K. Nardo)에 의하자면 밀턴은 이탈리아 여행 중 방문한 아카데미에서는 풍자적 소네트의 교환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Academic” 495-502). 『어떤 곳에서 걷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On Something that Walks Somewhere”) 같은 존슨의 에피그램도 세태 풍자라는 면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전시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상황의 비판과 풍자, 그리고 정적(政敵)에 대한 공격이 무성했던 시기였다. 왕당파에 속했던 존 클리블랜드(John Cleveland)나 아브라함 카울리(Abraham Cowley) 같은 작가들은 청교도나 장로교도에 대한 가차 없는 풍자를 에피그램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쏟아냈고, 내전 발발로 검열이 해제된 후에 범람하기 시작한 각종 팸플릿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필자들은 자신의 정적을 신랄한 언어로, 종종은 우스꽝스러운 삽화도 곁들여가며 비난했다(Smith 304-17).

밀턴의 정치산문은 워낙 신랄함과 공격성으로 유명하지만, 소네트에서도 밀턴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테트라코돈』 등의 이혼론을 비난하는 세력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소네트 11, 12와 1645년에 의회가 예배 형식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을

비판한 『장기의회에서 양심을 강탈하는 새로운 세력에 대해』(“On the New Forcers of Conscience under the Long Parliament,” 이하 『장기의회에서』)에서는 다른 16-7세기의 소네트뿐 아니라 밀턴 자신의 다른 소네트에 비해서도 더 직설적이고 구어적인 문체, 매우 거친 운율과 공격적인 화법을 발견할 수 있다. 소네트 11이 이혼을 주장한 밀턴의 산문을 표지의 문구만 보고서도 기겁하며 오해하는 한심하고 무지한 독자들을 회화화하여 마치 소극(farce)의 한 장면처럼 그렸다면, 소네트 12는 미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독사나 돼지 같은 하등한 동물에 비유하며 인간다운 존엄도 합리성도 실종된 한심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장기의회에서』는 이 두 편보다 비판의 수위와 정교함을 더 높인 작품이다. 바바라 르왈스키(Barbara K. Lewalski)나 자넬 뮐러(Janel Mueller) 등의 평자가 추측하듯이(Lewalski 205; Mueller 494-96), 밀턴이 코다가 첨부된 소네트(sonnetto caudate) 형식을 이용한 까닭도 마치 채찍질 같이 느껴지는 코다 부분을 추가로 이용하여 조소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함이다.

『장기의회에서』의 첫 부분은 당혹스러우리만큼 직접적인 비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로도 밀턴은 정연한 논변 같은 어조로 내전 후 진행된 정치적 움직임을 선정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고발한다.

네가 네 고위성직자 나리를 내던지고,
 엄숙한 맹세로 그의 전례(典禮)를 포기하고서는
 그 죄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면서
 남편 잃은 창부인 교회직분겸직을 잡겠다고,
 이를 위해 감히 공민의 검에게 간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의 양심을 강탈하고
 계층 위계로써 우리들을 타려고 말이다.

Because you have thrown off your prelate lord,
 And with stiff vows renounced his liturgy
 To seize the widowed whore plurality
 From them whose sin ye envied, not abhorred,

Dare ye for this adjure the civil sword
 To force our consciences that Christ set free,
 And ride us with a classic hierarchy (1-7)

여기에서 예배 절차를 강제하려고 하는 장기의회의 시도는 자신이 비난했던 형식을 다시 도입하는 파렴치하고 위선적이고도 비정상적인 행위로 묘사된다. “과부가 된 창부”(3)나 “질투하다”(4), “강탈하다,” 또 “타다”(7) 같은 어휘가 지닌 성적인 함축은 종교적 쟁점을 다루는 이 시에서 기괴한 울림을 낳으며, 엄숙하게 이전의 성직자들을 단죄했던 장기의회 내의 세력이 뒤틀리고도 세속적인 권력욕을 은밀하게 품어왔었음을 효과적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장기의회에서』는 라틴어 문체를 연상시키는 도치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밀턴의 장중한 문체가 가장 구어처럼 들리는 경우이다. 밀턴은 내전 시기의 팸플릿 전쟁(pamphlet wars)에 참여한 작가들이 그러했듯이 적의 의도를 간파하여 명료하게 서술하며, 마치 도전을 던지는 것처럼 적의 악덕이나 약점에 대한 비판을 쉬지 않고 전투적인 어투로 내뱉고 있다. 밀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명명되지도 않은 채 “너희들”로만 불리는 적들과 “우리들”의 양심을 대비시키면서 정면으로 의회의 조치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군과 아군 사이에 그어진 분명한 선을 느끼게 해주는 수사이다.

전반부부터 강력한 언어로 가히 전면전을 펼쳐졌던 데에 반하여 코다 부분은 좀 더 가벼운 분위기로 전환되어, 두 개의 코다에 거쳐 희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기의회 안의 ‘적’들이 가상으로 재판, 처벌되고 있다. 밀턴은 윌리엄 프린(William Prynne)처럼 내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권위적인 영국교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세력이 정작 의회라는 권력을 쟁취하자 보수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비난한다. 코다 부분에서 이들은 귀는 살짝 피하여 남겨 두지만 그 대신 성구(聖句) 카드를 근엄하게 자르는 (That so the Parliament / May with their wholesome and preventive shears / Clip your phylacteries, though baulk your ears, 15-17) 형벌을 받고 있다. 성구 카드가 잘리는 벌은 이전에 이들이 받았던 형벌보다는

가볍지만 의회 세력의 종교적 위선을 노출시키는 데에는 충분하고, 이들의 호들갑에 비해 실없어 보이기에 더욱 희극적이다. 마지막 행이자 “고발장”(charge)의 내용인 “새 장로교도는 이전의 성직자가 큰 글자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New *Presbyter* is but old *Priest* writ large, 20)는 종교적 명분은 내세웠으나 실제로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의회 내의 세력을 촌철살인과 같은 선언으로써 꼬집고 있다. 보통 소네트의 분량인 14행에 추가된 코다 부분은 조소로 점철되어 있고, 최종 선언은 독자의 기대를 증폭시키며 지연되었던 만큼 더 통렬하게 들리게 된다.

『장기의회에서』나 이혼론 비판 반박을 시도했던 소네트 11, 12가 고발과 풍자에 전념한 정치시라면, 페어팩스, 크롬웰, 헨리 베인(Sir Henry Vane)에게 바친 소네트 15(“Fairfax, whose name in arms through Europe rings”), 16(“Cromwell, our chief of men, who through a cloud”), 17(“Vane, young in years, but in sage counsel old”)은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인물의 행적과 미덕을 조명한다. 이들 정치적 소네트에서 밀턴은 역사적 국면을 가늠해 보는 한편,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과 권고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1673년에 밀턴은 두 번째 작품집을 왕정복고라는 상황 하에서 출판하면서 아마도 정치적인 위험을 우려하여 이 세 편의 소네트를 빼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에 관한 이 소네트들은 밀턴이 당대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했는지 알려주는 좋은 창이다.⁸⁾ 또한 밀턴은 찰스 1세 처형을 전후한 시기에 출판한 산문에서는 의회나 일반 독자를 상정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이런 독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했고, 1649년부터는 라틴어서기관(Latin Secretary)이라는 공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문에서 드러난 밀턴의 공공적인(public) 모습과

8) 페어팩스와 크롬웰을 찬양한 소네트 15와 16은 에드워드 필립스(Edward Phillips)가 1694년 출판한 *Letters of State*를 통해 처음 출판되었다. 베인에게 바친 소네트 17은 조지 사이크스(George Sikes)가 1662년 출판한 베인의 전기(*Life and Death of Sir Henry Vane*)에 처음 출판되었는데, 사이크스는 이 소네트가 1652년 베인에게 보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 편 모두 트리니티 대학 수고본에서는 발견된다.

목소리가 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롭겠다.

소네트 16은 앤드류 마블(Andrew Marvell)의 『호라티우스풍 오드』(“An Horatian Ode”)처럼 크롬웰이 권력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호국경이 되지는 않았던 결정적인 시기에 집필되었다. 내전이라는 역사적 현장의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크롬웰을 평가하며 밀턴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강직한 장군인 크롬웰을 변호하고 찬양하는 한편, 크롬웰과 영국이 함께 나아가야 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내비친다. 크롬웰의 경우, 페어팩스와는 달리 신분은 대단하지 않은 반면, 그의 놀라운 행동력과 군사적 능력, 진지한 종교성은 분명했기에 1650년대 초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크롬웰이라는 버거운 역사적 인물을 바라보면서 마블은 『호라티우스풍 오드』에서는 매우 교묘한 균형잡기를 시도하다가 호국경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찬양시(panegyric)를 쓰게 되었고, 윌리의 경우 찰스 1세에 대하여 썼던 찬양시의 비유법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서 크롬웰에 대한 찬양시를 지었다. 이들과는 달리 밀턴은 크롬웰 개인의 재능과 영광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다. 그 대신 밀턴은 크롬웰을 “우리의 수장”(our chief of men)으로 부르면서 그의 직분을 환기시키고, 그를 자신을 비롯한 영국인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제시한 후에, 크롬웰이 신앙과 군사적 용맹함을 지녔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Guided by faith and matchless fortitude, / To peace and truth thy glorious way hast ploughed, 3-4). “갈다”(plough)라는 농경을 연상시키는 어휘를 선택한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크롬웰의 신분도 오히려 그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계기로 이용되고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행에서도 계속 크롬웰의 두 측면, 즉 “신의 우승배”(God’s trophy, 6)를 세우는 종교적 미덕과 그가 정복한 지역을 통해 예시되는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크롬웰이 수행해야 할 종교적인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밀턴은 평화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역설한 후(9-11), 아마도 곧 정치적 권력까지도 쥐게 될 것 같은 크롬웰에게 밀턴 자신이 보기에는 영국의 최고 급선무였던 종교적 “양심”(conscience)을 보장하는 종교

적 관용을 지지하라고 촉구한다.)⁹⁾ 또 시의 마지막에서도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영국국민의 양심을 보호해주시를 권고 및 부탁할(Help us to save free Conscience from the paw / Of hiring wolves whose Gospel is their maw, 13-14) 때에도, “앞발”(paw)과 “밥통”(maw), “늑대들”(wolves) 등 비인간적 측면을 고발하는 단어와 각운으로써 밀턴은 종교적인 관용에 대해 편협한 태도를 보이는 이기적인 세력을 회화화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보이는 밀턴의 정치적 메시지와 요구는 매우 명료하고 수사적 효과도 강력하긴 하나, 시 전체를 두고 본다면 전반부의 찬양과 후반부의 권고 사이의 균형이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전반부에 전개된 크롬웰에 대한 찬양은 비교적 전형적인 수사법에 의존하고 있고, 그의 전투 행적을 늘어놓고만 있는 듯 보여서 지도자로서 크롬웰의 전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반면에 후반부에 실린 종교적 관용이라는 역사적 과업과 권고는 상당히 엄숙한 어조로 진술되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적대 세력에 대한 강하고 신랄한 비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중한 찬양으로 시작한 이 시의 향방이 현재의 과업으로 지나치게 끌려오는 나머지 앞서 나왔던 크롬웰에 대한 찬양은 빛이 바래는 것처럼 보인다.

14행에 불과한 소네트의 공간 속에서 한 인물과 그가 참여하고 있는 역사적 국면의 전모를 담아내려면 아무래도 핵심적인 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다 해도 소네트 16의 마지막 두 행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하되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는 않은 채 뚝 끊긴 것처럼 종결되고 있다. 어찌 보면 소네트 16은 정치적 국면은 매우 불확실하고, 크롬웰에 대한 밀턴의 판단 역시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미묘한 상황이 시 자체에 적지 않게 반영되어

9) 전쟁보다 평화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은 키케로 등 고전에서도 곧잘 찾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밀턴 자신도 전쟁과 무력이라는 수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매혹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네트 12에서는 전쟁을 “이 모든 재산의 낭비와 피의 손실”(For all this waste of wealth, and loss of blood, 14)로 부르면서 전쟁의 상황에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올바르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다. 또 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장군인 페어팩스에게 바치는 시에서조차 “전쟁이 끝없는 전쟁 외에 무엇을 낳겠습니까?”(For what can war, but endless war still breed, Sonnet 15, 10)라고 말하고 있다.

“사건의 중간에서”(in medias res), 혹은 진행형으로 끝나는 것 같은 형국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불투명한 내전의 분위기를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소네트 16의 종지부가 비교적 더 눈에 띄게 불투명하고, 알맞은 균형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 개개의 역사적 순간과 그 속에서 행동하는 인물을 평가 혹은 비판하는 소네트는 이처럼 현장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네트 16에서처럼 불확실한 정국이 영향을 끼쳐서 만든 아니고, 밀턴이 자신의 시에서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 담당할 역사적 사명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순간 자체는 미래에 남겨두기를 의도해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독자는 이 인물들이 행동으로써 역사에 개입하고 미래를 주조해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기대해 보게 된다.¹⁰⁾

헨리 베인에게 바쳐진 소네트 17은 정국에 대한 비판과 분석, 제언의 방식으로서 시가 당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나 한 개인의 특정한 정치 공과를 찬양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인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인 데에다가, 구체적인 시작(詩作)의 계기나 베인과 밀턴의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까닭에 밀턴의 정치시를 논하는 연구조차도 소네트 17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인에게 바친 소네트는 내전 시기의 여러 사건을 겪은 밀턴이 높이 사게 된 정치적 미덕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존슨이 윌리엄 챔든(William Camden)이나 윌리엄 로(William Roe) 등 당대의 유명 인사를 평가, 칭송하면서 바람직한 학자, 외교관, 혹은 정치가의 자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했던 것처럼, 밀턴도 베인 같은 인물을 통하여 정치, 사회적 영역에서 발휘되어야 할 공공선(public good)의 이상을 논의하고 있다. 밀턴은 관료로서의 유능함과 실질적인 지식뿐 아니라 도덕성과 종교적 겸손함까지 지닌 자들이 신의 자유로운 공화정에 알맞은 종북이라고 보는데, 베인은 바로 그런 인물의 사례로 제시된다.

10) 규모는 달라도 장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실낙원』의 대단원에는 어려운 길을 앞에 두고 에덴을 출발하는 아담과 이브가 묘사되고 있고, 『복낙원』의 마지막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소네트 17과 페어팩스나 크롬웰에 대한 소네트를 비교해 보아도 흥미롭다. 페어팩스에게 바친 소네트의 경우, 훌륭한 군사 지도자이자 명망 있는 귀족인 페어팩스를 찬양하다 보니 마치 로마 장군의 개선 환영시에서처럼 다소 ‘공식적’이고 전형적인 비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크롬웰을 평가한 소네트 16은 위에서 논의했듯이 일정 정도의 불안정성을 보인다. 이외는 달리 소네트 17에서 밀턴은 군사, 외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베인을 종교적인 미덕을 지닌 현명한 정치지도자로 주저 없이 승인한다. 크롬웰이 “우리의 주장”이었다면, 베인은 그의 정치 직분인 “의원”(senator)으로 호명된다. 다른 동시대인과 비교해서도 밀턴은 고전 희랍, 로마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과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영국이 추구할 이상을 논할 때에도 성경뿐 아니라 고전 작품의 사례를 곧잘 인용하였다. 베인에 대한 찬사도 마찬가지이다. 밀턴은 내전 시기에 의회파나 급진파 세력이 공화정을 수립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용하곤 하던 로마 공화정의 지도자와 비교함으로써 베인을 격상시킨다. 이에 더해 문치(文治)에 입각한 로마의 공화정 통치가 한니발처럼 강한 무력에만 의존하던 지도자에 의한 통치와 비교되면서 전자의 우월성이 강조되고, 다른 한편 베인을 포함한 영국인이 이끌 공화정이 밝아가야 할 길도 간접적으로 제안되고 있다(Rome, when gowns not arms repelled / The fierce Epirot and the African bold, 2-4).

전반부에서 밀턴이 묘사한 베인은 공민적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정치가이다. 5행부터 8행까지에서 제시되듯이 신대륙에서의 식민 통치와 해군에서의 경험을 두루 갖춘 베인은 복잡한 정치 상황을 헤쳐 나갈 식견도 있고, 무력을 마지막 순간에 발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도 지닌 지도자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 베인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큰 장점은 특정한 자질이 아니라 베인이 이런 다양한 능력을 그야말로 두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좁혀 말하자면 베인의 탁월한 점은 그가 근본적으로 종교적 미덕과 정치적 통치를 모두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자를 잘 분별(分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영적인 힘과 인간의 힘 양쪽을 알고, 각각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이 각각을 가르는지 당신은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가 별로 없었지요.
 우리가 각 검의 영역을 당신한테 받았고,
 그래서 종교가 당신의 굳건한 손에 평화롭게 기대면서
 당신을 그녀의 장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besides to know

Both spiritual power and civil, what each means,
 What severs each, thou hast learned, which few have done.
 The bounds of either sword to thee we owe;
 Therefore on thy firm hand Religion leans
 In peace, and reckons thee her eldest son. (9-14)

베인의 이런 분별력은 양자 선택에 관련된 말인 “양자”(Both), “각각”(each), “한 쪽”(either) 등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시행 자체도 행중휴지(caesura)가 효과적으로 이용된 존슨의 시에서처럼 쉽표나 시행의 바뀔 등으로 또박또박 명료하게 갈라진다는 특성 등을 통해서 강조된다. “각 검의 영역”(the bounds of either sword)이나 “가른다”(sever)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엄정함과 단호함도 베인의 절도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게 해준다.

베인의 예는 밀턴이 내전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공인으로서 정치직분에 임할 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려준다. 또 베인은 『교회통치론』(*The Reason of Church-government*) (1642) 등에서 피력되었던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밀턴의 굳은 신념에 맞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내분과 각종 제도에 대한 논쟁, 외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평탄치 않은 세월이 계속되었던 까닭에 외교, 군사적 지식을 비롯한 정치적 지혜와 순발력 있는 대처 능력은 더없이 긴요했다. 그리고 내전 내내 종교 관련 사안이 주요 쟁점이었던 데에다 선민의식과 천년왕국의 비전이 당대의 영국인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밀턴 역시 지도자의 핵심적 자질로 “영적인 힘”을 들고 있다. 반면에, 비합

리적이고 맹목적인 종교적 열정의 위험 역시 존재했고, 밀턴은 토머스 에드워즈(Thomas Edwards)의 『갱그레나』(*Gangraena*) 등의 자신의 이혼론에 대한 반응이나 소네트 15와 16에서 언급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 같은 문제로 인해 종교심이 발휘되는 형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있는 영국에는 종교적 위선과 오만 없이 신의 뜻을 현세의 정치적 영역에서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런 인식 때문에 밀턴은 베인을 극찬한 듯 보인다.

베인이 종교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뿐 아니라, 무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무력보다 우월한 공화적 문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밀턴은 베인에게 군사지도자들에게보다도 더 선선히 정치적 권력을 위탁하고 있다. 소네트 17의 마지막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일정 정도 이상의 정치적 능력과 종교적 미덕을 모두 성취한 베인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로 불리는 밀턴을 포함한 영국인들은 베인에게 손수 검을 쥐어 주고, 어머니로 비유된 종교 역시 자진하여 군사력과 정치, 종교의 영역에서 두루 뛰어나며 각 영역 사이의 경계도 섬세하게 구분할 줄 아는 베인에게 몸을 의지한다. 듄직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몸을 기대고 있는 사이좋은 모자의 평화로운 모습은 밀러가 설명한 것처럼(506) 인상적인 정지된 그림(*tableau*)처럼 보이고, 이렇듯 고양된 상태로 소네트 17은 마감되고 있다. 밀턴은 여기에서 종교적 미덕의 최종적 우위를 선언하는 동시에, 초반부에서 젊음이 언급되었던 베인을 믿음직한 장남으로 승격시키며 앞서 연속적으로 그려진 다방면으로 활동적인 베인의 모습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로 수렴하고 있다.

IV

앞서 논했듯이 밀턴의 1640-50년대의 소네트가 행사시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독특한 면모를 띄게 되기도 했다

만, 마지막 세 편의 소네트 20(“Lawrence of virtuous father virtuous son”), 21, 22(“Cyriak, this three years’ day these eyes, though clear to outward view”)는 밀턴이라는 작가를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중기 소네트를 읽어야 할 다른 이유를 가르쳐준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작품들에서는 다른 작품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기저 한 부분에서 연속되는 밀턴의 모습이 보인다. 앞에서 논의된 시에서도 그러한 면이 드러났지만 에드워드 로렌스(Edward Lawrence)와 시리아 스키너를 1차 청자로 하는 세 편의 소네트는 밀턴의 “사회적”(social) 면모를 강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들 소네트에서는 밀턴이 정치와 문화, 일상적 삶이 잘 균형 잡힌 상태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고, 또 겸허하게 견디며 희망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밀턴의 “사회적” 면모는 일찍이 얼 마이너(Earl Miner)가 기사당원 시인의 “사회적 양식”(social mode)과 밀턴과 드라이든의 “공공적 양식”(public mode)을 대비한 구분 방식을 의식한 언급이다. 마이너의 지적대로, 왕정복고기의 드라이든이 그러하듯이 『실낙원』 등의 후기 대작에서 밀턴은 영국인, 아니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특정한 동인 집단(coterie)을 독자로서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분명 밀턴의 중기의 문학작품이나 정치 산문은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독자층을 예상하여 집필되었다. 그런데, 밀턴의 문체나 독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좀 더 선별된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어주기를 희망하며 이성과 미덕을 좀 더 갖춘 독자에게 읽히도록 작품을 집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소네트처럼 정해진 형태와 기존에 수립된 문학적 관습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나르도처럼 밀턴의 소네트에서 제시된 인간 군상, 그리고 이 소네트를 읽을 것이라고 예상된 독자층을 “공동체”(community)라고 규정하면 좀 협소한 규정 방식으로 보인다(Sonnets 13-19). 페어팩스나 크롬웰은 분명 밀턴이 지인으로 여기기에는 힘든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영국 사회의 역사적 국면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밀턴은 이들 군사 지도자를 자신과 사회적으로 동등한 자로서 대하면서, 이들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노선을 취할 것이라

고 기대하며 시를 쓴 듯하다. 또 지인이나 현재, 미래의 정치적 동지 뿐 아니라 소네트 10이나 소네트 21에서처럼 제임스 1세 시대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소네트 8에서처럼 명백히 적으로 간주될 수 있을 왕당파 군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등, 밀턴은 자신의 시에 담기거나 자신의 시를 읽을 집단을 매우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회적”을 영어 “social”의 번역어로 사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회”(society)의 다른 의미로는 “친교” 내지 “사교,” “우정”이 있다(Miner, *Cavalier* 3-15, 263-66). 밀턴이 “사회적” 혹은 “사교적”인 모습을 1640-50년대의 소네트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이 시들에서 좁은 범위에서나마 자신이 속했던 영국 사회의 전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영국 사회 전체에 말을 걸었음을 뜻한다. 이는 또한 밀턴이 이 작품에서 사교적인 담화의 형식으로 자신의 청자와 독자에게 말을 걸고, 이들의 반응을 기대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사회의 상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적 담화의 속성은 청자를 향해 발화된 형식으로 쓰인 소네트에서는 거의 어김없이 발견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서사시나 팸플릿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밀턴의 소네트를 설명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상상하게 되어 있는 “공공적 양식”이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로렌스와 스키너를 청자로 삼는 소네트에서 이런 측면이 두드러져 보이는 까닭은 청자인 이 두 사람이 밀턴과 막역한 사이인 데에다 밀턴보다 나이도 어리다는 점도 물론 있다. 세 편 모두 유달리 허심탄회한 말투와 질문과 청유가 반복되는 등 그야말로 사회적, 사교적 담화라는 인상이 강하다. 일례로 소네트 22에서 밀턴은 자신에게 더없이 심각한 문제인 실명에 대하여 논할 때조차 “무엇이 나를 지지하냐고 자네 물었나? 양심일세, 친구여, 자유를 보호한다는 내 고귀한 과업에 매진하다가 그[시력]을 잃었다는”(What supports me dost thou ask? / The conscience, Friend, to have lost them overply'd / In liberty's defence, my noble task, 9-11)이라고 격식 없이, 담담하게 내뱉고 있다. 이는 이 소네트들에서 밀턴이 친구들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친구를 믿기에 물어보고 대답

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그리고 로렌스와 스키너를 청자로 하는 시에서 밀턴이 권장하고 있는 휴식과 즐거움도 사회적인 면이 강하다. 소네트 20에서 밀턴은 그와 로렌스가 즐겨야 할 다채로운 여흥거리를 “희랍풍의 정갈한 음식을 와인과 곁들여”(neat repast [...] Of Attick taste, with wine), “멋지게 연주되는 루트”(the lute well touched), “불멸의 음조와 토스카나풍 곡조를 재잘거리는 재주 좋은 목소리”(artful voice / Warble immortal notes and Tuskan Air) 등으로 늘어놓는다(9-12). 이런 다양한 여흥거리와 거듭되는 밀턴의 청유는 그가 청자들과 문화적, 지적 동일성을 전제하고 있고, 까다롭게 선별된 취향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문화적 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정과 문화적 동질성에 입각한 신뢰, 그리고 즐거운 공동적 경험은 이전에 음악가 헨리 로즈나 사서인 존 로우즈에게 보낸 시에서처럼 진지한 예술 활동이나 학술 활동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소네트 20과 21에서는 좀 더 일상적이고 경쾌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로렌스와 스키너 같은 청자와 공동으로 향유하는 경험 자체의 성격과 의의도 따져볼 수 있는데, 소네트 20과 21 모두 휴식과 즐거움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나, 밀턴은 이 휴식과 즐거움 뒤에 있는 현실의 암울함 역시 인지하고 이를 넘기지 않음에 유의하고 있다. 그리고 향유와 휴식의 지혜를 말하는 소네트 20의 마지막 경구조의 입언(He who of those delights can judge, and spare / To interpose them oft, is not unwise, 13-4)에서 알 수 있듯이 휴식과 즐거움은 단지 취향과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다. 소네트 20은 처음부터 나쁜 날씨를 휴식을 취할 이유로 제시한 후(1-2) “음울한 날”(a sullen day, 4)을 친구와 휴식하며 잘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비유로써 세상의 가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소네트 21에 등장한 스웨덴과 프랑스 등 대륙의 동란(8), 그리고 소네트 22에서 “세상의 허황된 가면극”(the world’s vain masque, 13)으로 간략히 언급되는 현실 세계는 소란스럽고 공허하다. 밀턴이 권고하는 휴식은 이렇듯 만만치 않은 현실에 억눌리지 않기 위한 적극적 행위이다. 소네트 21의 중반부에서는 “기쁨에 빠질 것”이 거의

도발적인 어투로, 적극 권유되는데(Today deep thoughts resolve with me to drench / In mirth, 5-6), 이렇게 의지를 갖고 기쁨을 추구해야만 이전과 이후에 나오는 지루한 학문, 법률의 안타까운 타락, 목직한 정치적 격변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평자가 지적하듯이(Hinman 259-62; Kerrigan, Rumrich, and Fallon 158) 밀턴이 이처럼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구와의 향연을 추구하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그와 반대 입장을 취했던 기사당원의 작품과 적잖이 닮아 있다. 이는 내전이라는 사건이 그만큼 정파의 구분 없이 여러 시인에게 중압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지만, 밀턴과 기사당원 시인이 명백히 공유했던 문화적, 문학 적 유산인 희랍로마의 고전에서 호라티우스나 키케로 등의 작가가 우정 넘치는 친교에 대해, 또 공감에 바탕을 둔 생산적 향연(conviviality)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Miner, *Cavalier* 250-58). 기사당원 시인과 밀턴이 갈리는 지점이라면, 밀턴의 이러한 시는 피드몽 학살을 고발한 소네트 18, 「장기의회에서」, 혹은 크롬웰에 대한 소네트 16처럼 정치와 정면 승부하고 있는 소네트와 공존하고 있고, 시 한 편 속에서도 명암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기사당원들의 시가 그들 주위의 정치와 현실을 맹목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식이 내전의 가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내면의 기쁨,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의 친교 등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방어적으로 강조하는 편이라면, 밀턴은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밀턴에게 사교적 담화와 여흥은 정치에 대한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몰입을 경계하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소네트 21의 후반부에 놓여있는 밀턴의 진중한 권고도 휴식을 포함한 삶 전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임을 논하고 있다.

자네는 곧 배우게 될 것이네, 삶을 재는 법을, 또
견실한 선으로 이끄는 가장 가까운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온화한 하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으며,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반대하신다네. 이런 근심은 현명한 듯 보이나,
 과한 부담으로 하루를 짐 지우며,
 신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때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To measure life, learn thou betimes, and know
 Toward solid good what leads the nearest way;
 For other things mild Heaven a time ordains,
 And disapproves that care, though wise in show,
 That with superfluous burden loads the day,
 And when God sends a cheerful hour, refrains. (9-14)

축복하는 것 같은 어조로 밀턴이 젊은 시리아이 “삶을 재는 밥”(9)과 “건실한 선으로 이끌어 주는 가장 가까운 길”(10)을 곧 배우게 되리라고 말할 때, 요점은 폭넓은 의미의 선한 삶에 필요한 균형과 절제, 효용, 그리고 신의 선의에 대한 신뢰로 보인다. 빼어난 것들을 선택하여 선선히 즐기고 기뻐하는 자세는 어차피 곤궁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자비로운 신이 부여한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렵고 가혹한 사건까지도 자신의 섭리 속에 포함하고 있을 신이 휴식을 권고할 때 인간이 나서서 안달하는 것은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사실 앞부분에서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할 때에도 “오늘”이라는 제한 조건과 함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기쁨”(mirth, that after no repenting draws, 6)이라는 한정조건이 따라 붙었으며, 학문과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거나(rest) 멈추는(pause) 것이 권장되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미래에 있을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충분히 한 때를 즐겨워하는 넉넉한 삶의 방식은 외양만 그럴싸할 뿐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근심과 억제로 가득한 웅색한 삶의 방식과 다시 대비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관점에서조차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소네트 21의 담화는 스키너와 로렌스, 독자 등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예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밀턴은 이 시를 통해 아름답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적

세련됨과 순화된 감성을 지니고, 즐거움을 일상 속에 적절한 분량으로 배치하여 누리는 한편, 진지한 도덕적 고민과 정치적 소명까지도 겸허한 자세로, 주위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청자에게 균형 잡힌 자세로 총체적인 의미의 선을 꾸준히 모색할 것을 가르치는 행위는 밀턴 자신이 스스로를 다시 가르치는 계기이기도 하다.

V

밀턴 연구자들이 10여 편에 불과한 밀턴의 1640-50년대 소네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이 시들이 밀턴이 시인으로서 자신을 서서히 완숙시켜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 또 소네트야말로 여러 장르를 시도하고 버린 밀턴이 긴 기간에 거쳐 가장 연속적인 발전을 보여준 장르라는 것이다. 밀턴의 작품 전체를 놓고 보아도 1640-50년대의 소네트는 행사시에서나 소네트에서나 그의 역량이 성숙할 대로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밀턴은 선대의 시인들처럼 연작을 지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 결과 뚜렷한 일관적 주제를 찾기는 힘든 그의 24편의 소네트는 우연과 필연의 산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의 소네트 전체를 두고 보면 적어도 축적되며 진화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소네트의 전통을 두고 보아도, 비록 수량은 미미하다 해도 밀턴의 이 시기의 소네트는 시대를 거쳐 연애 소네트 연작, 종교 소네트 연작 등으로 계속 발전했던 소네트 장르에 영웅적 소네트와 풍자적 소네트 등을 추가함으로써 영국 소네트를 의미 있게 마감해준 셈이다.

이후에 생산된 밀턴의 작품과 1640-50년대 소네트 사이의 연속성은 여러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대부터 대작을 쓰고자 집요하게 계획했고, 한 번 썼던 작품은 미완성작까지도 버리지 않고 출판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갔던 밀턴은 소네트를 쓰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후에 쓸 대작을 계획하고 자료를 모았다. 실제로 1667년에 출판된 『실낙원』의 경우 집필 자체는 1650년대부

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낙원』에서 이브가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노래하는 부분이나(4. 641-56), 『투사 삼손』의 마지막(1745-58)처럼 장사에서 소네트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Samuels 143-45), 1640-50년대의 소네트와 후기의 대작 사이의 연관성은 형식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밀턴의 바쁜 공직 활동 중 짬짬이 집필했던 이들 소네트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내전 시기 산문의 신랄한 정치 풍자나 『실낙원』의 판테모니움의 각 악마에 대한 촌철살인의 묘사도, 아담과 이브, 미카엘의 유쾌하며 건설적인 담화도, 그리고 『투사 삼손』에서 삼손과 친구들 사이의 격론도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존 밀턴, 소네트, 영국내전, 정치시, 행사시, 사회적 양식

인용 문헌

- Brown, Cedric C. “Horatian Signatures: Milton and Civilized Community.” Ed. Mario A. Di Cesare. *Milton in Italy: Contexts, Images, Contradictions*. Binghamton, N.Y.: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and Studies, 1991. 329-44.
- Campbell, Gordon, and Thomas N. Corns. *John Milton: Life, Work, and Thought*. Oxford: Oxford UP, 2008.
- Di Cesare, Mario A., ed. *Milton in Italy: Contexts, Images, Contradictions*. Binghamton, N.Y.: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and Studies, 1991.
- Helgerson, Richard. *Self-Crowned Laureates: Spenser, Jonson, Milton and the Literary System*.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3.

- Herz, Judith Scherer. "Epigrams and Sonnets: Milton in the Manner of Jonson." *Milton Studies* 20 (1984): 29-41.
- Hinman, Robert. "'A Kind of a Christmas Ingine': Jonson, Milton, and the Sons of Ben in the Hard Season." *Classic and Cavalier: Essays in Jonson and the Sons of Ben*. Ed. Claude J. Summers and Ted-Larry Pebworth.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82. 255-78.
- Honigmann, E. A. J., ed. *Milton's Sonnets*. London: Macmillan, 1966.
- Lewalski, Barbara K. *The Life of John Milton*. Oxford: Blackwell, 2000.
- McCarthy, William. "The Continuity of Milton's Sonnets." *PMLA* 92.1 (1977): 96-109.
- Milton, John. *Milton: Complete Shorter Poems*. Ed. John Carey. 2nd ed. Longman Annotated English Poets Ser. New York: Longman, 1997.
- _____. *The Complete Poetry and Essential Prose of John Milton*. Ed. William Kerrigan, John Rumrich, and Stephen M. Fallon. New York: Modern Library, 2007.
- _____. *The Riverside Milton*. Ed. Roy Flannagan. Boston: Houghton-Mifflin, 1998.
- Miner, Earl. *The Cavalier Mode from Jonson to Cotton*.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1.
- _____. *The Restoration Mode from Milton to Dryden*. Princeton, N.J.: Princeton UP, 1974.
- Mueller, Janel. "The Mastery of Decorum: Politics as Poetry in Milton's Sonnets." *Critical Inquiry* 13.3 (1987): 475-508.
- Nardo, Anna K. "Milton and the Academic Sonnet." Ed. Mario A. Di Cesare. *Milton in Italy: Contexts, Images, Contradictions*. Binghamton, N.Y.: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and Studies, 1991. 489-503.
- _____. *Milton's Sonnets and the Ideal Community*. Lincoln: U of Nebraska P, 1979.

- Neely, Carol Thomas. “The Structure of English Renaissance Sonnet Sequences.” *ELH* 45.3 (1978): 359-389.
- Prince, F. T. *The Italian Element in Milton’s Verse*. Oxford: Clarendon, 1953.
- Rumrich, John P., and Gregory Chaplin, eds. *Seventeenth-Century British Poetry: 1603-1660*. New York: Norton, 2006.
- Samuels, Peggy. “Milton’s Use of Sonnet Form in *Paradise Lost*.” *Milton Studies* 24 (1988): 141-54.
- Schlueter, Kurt. “Milton’s Heroical Sonnets.” *SEL, 1500-1900*. 35.1 (1995): 123-136.
- Smith, Nigel. *Literature and Revolution in England, 1640-1660*. New Haven: Yale UP, 1994.
- Stull, William L. “Sacred Sonnets in Three Styles.” *Studies in Philology* 79 (1982): 78-99.
- _____. “‘Why Are Not Sonnets Made of Thee?’ A New Context for the ‘Holy Sonnets’ of Donne, Herbert, and Milton.” *Modern Philology* 80 (1982): 129-35.
- Waller, Edmund. *The Poems of Edmund Waller*. 2 vols. Ed. G. Thorn-Drury. London: Routledge, 1905.

Exploring “Solid Good”: An Examination of John Milton’s 1640-50s Sonnets

Abstract

Younkyung Kim

Though John Milton kept on writing sonnets during the busy years of the English Civil War, his sonnets have been relatively ignored by scholars partly because his sonnets do not look like a proper sonnet sequence. This paper examines several sonnets that Milton composed in the 1640s and 1650s, noting how the poet addressed his audience in these sonnets which resemble a social discourse.

In the sonnets dedicated to his close associates, such as Henry Lawes or Catherine Thomason, Milton uses the literary conventions of occasional poetry in the manner of Ben Jonson and Cavalier poets. When Milton praises the cultural excellence or religious, social virtues of his addressees, whose political views often differ from his, he takes a tolerant attitude and, by highlighting those exemplary figures, tries to sket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is country.

In contrast, some of Milton’s 1640-50s sonnets evince direct influences of the Civil War. Inheriting the classical satire or epigram and imitating the political pamphlets of the period, in these sonnets Milton denounces political enemies or extols the virtue of the Republican leaders. When he criticizes problematic religious policies or the reactions to his divorce tracts, he utilizes the colloquial tone and sensational images, or new formal features like the coda. Milton’s judgment on and praise of the contemporary political figures such as Oliver Cromwell or Henry Vane stresses their critical roles in uncertain

times and the diverse political, religious virtues required in the Civil War.

Milton's sonnets addressed to his close friends are characterized by their conversational tone and the theme of common experience of convivial times. In these particularly “social” sonnets, he emphasizes the balanced, humbled attitude toward the troublesome world and the calm appreciation of the mirth provided by the provident, beneficial God.

Key Words

John Milton, sonnet, the English Civil War, political poetry, occasional poetry, social mode

논문 투고 일자 : 2009. 12. 15

게재 확정 일자 : 2010. 1. 20